

현안과 과제

■ 최근 수출 침체의 요인별 분해와 시사점
- 해외 수요 부진에 환율 여건마저 악화되는 이종고

Executive Summary

< 요약 >

■ 개요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으로 꼽히는 수출이 감소세다. 최근 수출 부진은 일본, 유럽, 중국 등 주요국 수출이 줄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우리나라의 지역별 수출은 가격경쟁력을 나타내는 양국 간 환율 수준과 수입수요를 나타내는 상대국 경제성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수출 변동 원인을 가격경쟁력과 수입수요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가격경쟁력, 수입수요에 따른 주요국 수출

(對미국 수출) 시장의 수입수요 확대로 對미국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금융위기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우리상품의 가격경쟁력은 과거에 비해 높지 않지만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가격경쟁력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對일본 수출) 일본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어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엔화 대비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2015년 1/4분기 기준 158.3p로 장기평균(113.2p) 대비 39.8% 고평가되어 역대 가장 높았던 2007년 1/4분기(159.7p)에 근접하였다. 또한 일본의 경제 부진이 지속적되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수요가 줄고 있다.

(對유럽 수출) 유럽 시장은 유로화 약세 영향으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수출이 최근에 급감하였다. 유로화 대비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2015년 1/4분기 기준 120.9p로 장기평균(108.7p) 대비 11.2% 높으며 현재 2006년 1/4분기(127.6p) 이후 가장 고평가된 상태이다. 유럽의 경제회복세는 아직까지 미흡하여 유럽으로부터의 수입수요 역시 약하다.

(對중국 수출) 중국 시장은 경제성장률 감속으로 수입수요가 위축되어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 7%대 초반까지 하락하였으며 2015년은 경제성장률이 6%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가격경쟁력 측면은 對중국 수출에 부정적이지 않은 수준이다.

< 주요 시장별 가격경쟁력, 수입수요 전망 >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한국의 가격경쟁력	개선	악화	악화	유지
상대국 수입수요	확대	축소	축소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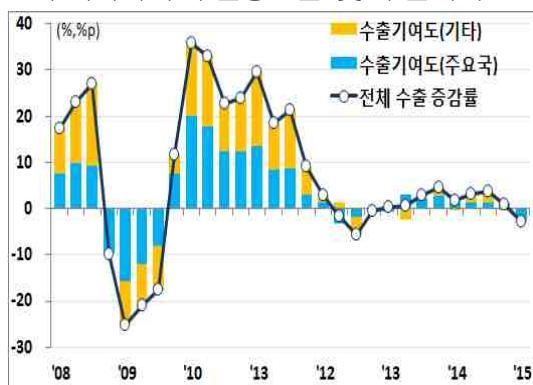
■ 시사점

향후에도 일본, 유럽, 중국으로의 수출 환경은 우리나라에게 좋지 못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별 맞춤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국내 수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이를 전체 수출 경기 회복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엔화, 유로화의 과도한 평가 절하로 인한 일본, 유럽으로의 수출 부진은 제품 경쟁력 차원에서 기술, 품질, 문화 등 비가격 경쟁력 제고 노력으로 대응해야 한다. 셋째, 중국 경제의 수입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수출 제품을 중국의 내수시장 변화에 알맞은 상품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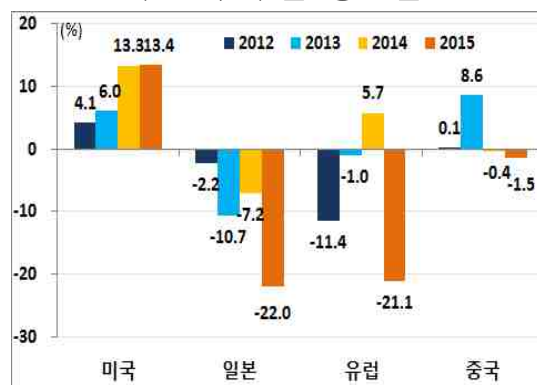
- (연구배경) 최근 국내 수출이 주요국을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어 주요국 시장의 수출 둔화 원인과 향후 수출 환경 분석이 필요
 - 최근 수출(금액 기준)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일본, 유럽, 중국¹⁾ 등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국으로의 수출이 줄고 있음
 -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은 2014년 3/4분기 전년동기대비 3.6%에서 4/4분기 0.9%를 기록한 이후 2015년 1/4분기에는 -2.8%로 감소세를 보임
 - 올해 1/4분기 수출 증가율은 미국(13.4%)의 경우 비교적 높지만, 일본(-22.0%), 유럽(-21.1%), 중국(-1.5%) 등 지역으로의 수출이 부진
 - 우리나라의 지역별 수출은 가격경쟁력을 나타내는 양국 간 환율 수준과 외국의 수입수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음
 - Rose&Yellen(1989)²⁾, Chinn(2004)³⁾ 등은 국내의 특정국가로의 수출은 양국 간 환율과 상대국 소득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
 - 즉 우리나라의 주요국 수출은 원/달러, 원/엔, 원/유로, 원/위안 등 지역 환율과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수입수요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연구목적) 본 보고서에서는 지역별 수출시장 중 주요국의 수출 둔화 원인을 가격경쟁력과 수입수요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 우리나라의 수출증감률 및 수출기여도 >



자료 : 무역협회.
 주 : 주요국은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이며 기타는 4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 주요국 수출 증감률 >



자료 : 무역협회.
 주 : 2015년은 1/4분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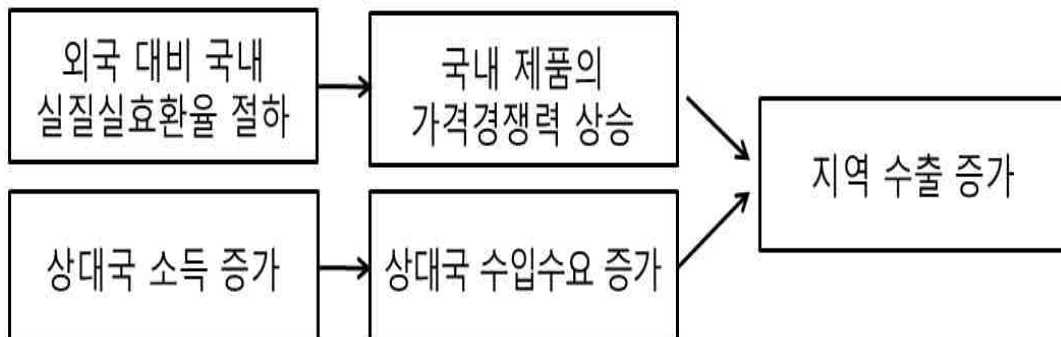
1)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은 중국(25.4%), 미국(12.3%), 유럽(9.0%), 일본(5.6%)임.
 2) Rose, A. K. and J. L. Yellen. 1989. "Is There a J-Curve?"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3) D. Chinn. 2004. "Incomes, Exchange Rates and the US Trade Deficit, Once Again." International Finance.

2. 가격경쟁력, 수입수요에 따른 주요국 수출

○ (분석방법) 가격경쟁력을 나타내는 양국 간 실질실효환율과 수입수요를 나타내는 경제성장률로 우리나라의 주요국 수출을 분석

- **분석방법** : 가격경쟁력을 나타내는 실질실효환율과 수입수요를 나타내는 경제성장률을 특정 국가로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사용
- **가격경쟁력** : 우리나라의 수출 가격경쟁력을 나타내기 위해 지역별(원/달러, 원/엔, 원/유로, 원/위안) 실질실효환율을 추정하여 사용
 - 각 국가의 물가수준 및 국가별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산출한 실질실효환율은 명목환율, 실질환율보다 수출경쟁력을 나타내기에 적절
 - 양국 간 환율 수준 평가는 (국내 실질실효환율/외국 실질실효환율)×100이 장기 평균보다 높으면 상대국에 비해 원화 고평가, 장기 평균보다 낮으면 원화 저평가로 해석
 - 실질실효환율은 OECD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장기 평균은 2000년 1월~2015년 3월 평균값임
- **수입수요** : 교역 상대국의 수입수요는 실질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느냐에 영향을 받음
 - 교역 상대국의 수입수요 변화는 상대국의 실질GDP 증감률이 어떻게 변동했는지 판단
 - 실질GDP의 출처는 OECD이며 분석의 통일성을 위해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4개 지역 모두 전년동기대비 사용⁴⁾

< 지역별 환율, 상대국 소득 변화가 지역 수출에 미치는 영향 >



4) 분기 경제성장률을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미국은 전기대비연율, 일본과 유럽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를 사용.

- (對미국 수출)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않지만** 미국의 수입수요 확대로 **對미국 시장의 수출은 양호한 성장**
 - 달러화 대비 원화 고평가 : 달러화 대비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2015년 1/4분기 기준 104.0p로 장기평균(101.7p) 대비 2.3% 고평가되어 있음
 - 최근 달러화 대비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장기균형 수준 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음
 - 미국 수입수요 양호 :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수요가 양호
 - 미국 경제는 금융위기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p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의 총수출 증감률 약 0.21%p 증가⁵⁾ 요인으로 작용
 - 對미국 수출 완만한 회복 : 달러화 대비 원화는 다소 고평가 되어있지만 미국의 수입수요가 양호하여 對미국 수출은 완만한 회복세
 - 우리나라의 對미국 수출증감률(전년동기대비)은 2014년 2/4분기부터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2014년 4/4분기 21.9%, 2015년 1/4분기 13.4% 증가

< 원/달러 실질실효환율 및 경제성장률 >



자료 : IMF, OECD 자료를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
 주 : 실질실효환율의 장기균형 대비 괴리율
 $\text{=} (\text{실질실효환율} / \text{장기균형}) - 1 \times 100$.

< 對미국 수출증감률 및 수출기여도 >



자료 : 무역협회.
 주 : 수출기여도는 국내 전체 수출에서 對중국 수출의 기여도.

5) 현대경제연구원, 2014.1, “미국 경기 회복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對일본 수출) 일본 시장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일본의 수입수요 크지 않아 對일본 시장의 수출 부진이 심화
 - 엔화 대비 원화 고평가 : 엔화 대비 원화 실질실효환율은 2015년 1/4분기 158.3p로 장기평균(113.2p) 대비 39.8% 고평가되어 역대 가장 높았던 2007년 1/4분기(159.7p)에 근접
 - 일본 정부의 아베노믹스 추진으로 2013년 이후부터 엔화 대비 원화가 고평가가 되고 있음
 - 원/엔 명목환율이 10% 하락 시 우리나라 총 수출은 9.2%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⁶⁾
 - 일본 수입수요 부진 :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수요가 부진
 -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2014년 2/4분기 -0.4%, 3/4분기 -1.4%, 4/4분기 -0.7%로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
 - 對일본 수출 감소세 지속 : 엔화 대비 원화 실질실효환율 고평가, 일본의 수입수요 부진 등으로 일본 시장으로의 수출이 크게 약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對일본 수출 증감률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 원/엔 실질실효환율 및 경제성장률 >



자료 : IMF, OECD 자료를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
 주 : 실질실효환율의 장기균형 대비 괴리율 = $(\text{실질실효환율} / \text{장기균형}) - 1 \times 100$.

< 對일본 수출 증감률 및 수출기여도 >



자료 : 무역협회.
 주 : 수출기여도는 국내 전체 수출에서 對중국 수출의 기여도.

6) 현대경제연구원, 2014.5, “원/100엔 환율, 1,000원 붕괴의 영향과 시사점”.

○ (對유럽 수출) 유럽으로의 수출은 가격경쟁력과 수입수요 측면 우리나라에 불리하여 최근 對유럽 수출이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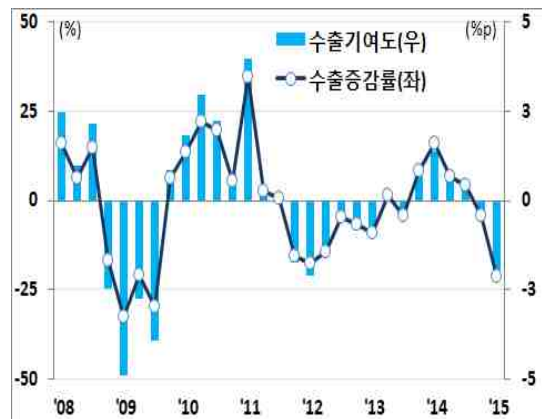
- 유로화 대비 원화 고평가 : 유로화 대비 원화 실질실효환율은 2015년 1/4분기 121.9p로 장기평균(108.7p) 대비 12.2% 높으며 2006년 1/4분기(127.6p)이후 가장 고평가된 상태
 - 유럽의 양적완화 실시로 유로화의 명목환율이 달러와 1:1 패리티에 거의 도달하는 등 유로화의 약세가 지속
- 유럽 수입수요 개선세 미흡 : 유럽의 경제회복세가 아직까지 미흡하여 유럽으로부터의 수입수요가 약함
 - 유럽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 2/4분기 1.3%, 3/4분기 1.2% 4/4분기 1.3%로 아직까지 1%대의 미약한 성장을 보이고 있음
- 對유럽 수출 급감 : 유럽의 양적완화 실시로 유로화 대비 원화는 크게 고평가가 되고 있으며 유럽의 수입 수요 역시 미진하여 최근 유럽으로의 수출이 급감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對유럽 수출증감률은 2014년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4.1%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 1/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21.1%까지 급감하였음

< 원/유로 실질실효환율 및 경제성장률 >



자료 : IMF, OECD 자료를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
 주 : 실질실효환율의 장기균형 대비 괴리율 = $(\text{실질실효환율} / \text{장기균형}) - 1 \times 100$.

< 對유럽 수출 증감률 및 수출기여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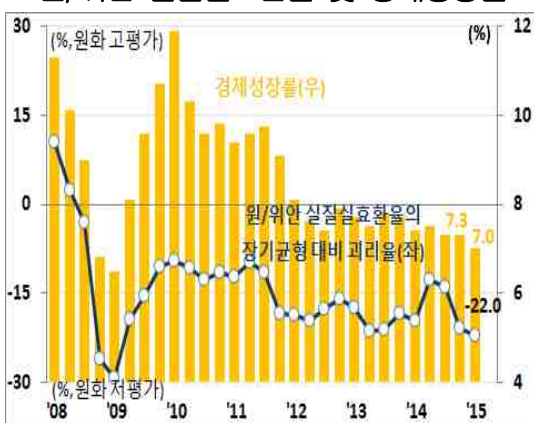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주 : 수출기여도는 국내 전체 수출에서 對중국 수출의 기여도.

○ (對중국 수출)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가격경쟁력은 부정적이지 않지만 중국의 수입수요가 점차 둔화되고 있어 對중국 수출 부진이 장기화

- 위안화 대비 원화 저평가 : 위안화 대비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2015년 1/4분기 기준 87.7p로 장기평균(112.5p) 대비 22.0% 저평가되어 있음
 - 2011년 이후부터 위안화가 절상되는 모습을 보이며 과거에 비해 원화는 위안화 대비 다소 저평가 되어 있음
- 중국 수입수요 둔화세 :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감속하고 있으며 중국의 수입정책 변화 등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수요가 지속적으로 둔화
 -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에 10%가 넘는 고도성장을 기록하였지만 최근 성장률이 서서히 둔화되며 2015년 1/4분기 7.0%까지 하락
 - 중국 경제성장률이 1%p 하락 시 우리나라의 총수출 증감률은 1.7%p 하락⁷⁾
 - 이외에 중국 수입정책 및 수입구조 변화가 중국 수입수요 감소에 영향⁸⁾
- 對중국 수출 둔화 지속 : 양국 간 환율 수준은 과거보다 국내 수출에 우호적인 수준이지만 중국 시장의 수입수요 감소가 중국으로의 수출 둔화를 견인
 - 중국으로의 수출은 2014년 2/4분기 -2.8%로 감소세를 보인 이후 2/4분기 -1.7%, 4/4분기 0.4%, 2015년 1/4분기 -1.5%로 부진이 장기화

< 원/위안 실질실효환율 및 경제성장률 >



자료 : IMF, OECD 자료를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
 주 : 실질실효환율의 장기균형 대비 괴리율(좌)
 $\text{율} = (\text{실질실효환율} / \text{장기균형}) - 1 \times 100$.

< 對중국 수출 증감률 및 수출기여도 >



자료 : 무역협회.
 주 : 수출기여도는 국내 전체 수출에서 對중국 수출의 기여도.

7) 현대경제연구원, 2012. 2 “양날의 칼(double-edged sword), 중국 경제”.

8) 현대경제연구원 2015.3 “중국 수입구조 변화와 시사점”.

3.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향후 우리나라의 對미국 수출 환경은 양호하겠지만 일본, 유럽, 중국으로의 수출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달러화 강세로 달러화 대비 원화는 평가 절하될 가능성이 높지만 엔화, 유로화에 대해서는 원화가 앞으로도 고평가될 가능성이 높음
 - 엔화, 유로화의 가치 하락 속도가 원화 보다 가팔라 향후에도 이들 통화 대비 원화는 고평가될 것으로 예상
 - 주요 IB들은 달러화 대비 원화의 가치가 올해 말까지 절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위안화 대비 원화 가치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수요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본, 유럽, 중국의 수입수요는 향후에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
 - IMF는 2015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수년간 기록한 2%대 초반 성장보다 높은 3.1%로 예상하고 있음
 - 이에 반해 2015년 일본과 유럽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1.0%, 1.6%로 성장 강도가 약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성장세가 과거보다 둔화되어 경제성장률이 6%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향후에도 가격경쟁력과 수입수요 측면에서 일본, 유럽, 중국으로의 수출 환경은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
 - 환율 수준과 수입수요를 고려해 볼 때 일본, 유럽, 중국으로의 수출 부진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 다만 미국으로의 수출 환경은 가격경쟁력과 수입수요 모두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주요국 가격경쟁력, 수입수요 전망 >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우리나라 가격경쟁력	개선	악화	악화	유지
상대국 수입수요	확대	축소	축소	축소

○ 주요국별로 가격경쟁력과 수입수요의 변화가 상이하므로 지역별 수출 환경 변화에 알맞은 대응 전략 마련 필요

첫째, 국내 수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이를 전체 수출 경기 회복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등 주요 품목들의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마케팅을 강화하여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
-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FTA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은 미국 현지에 진출 거점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
- 미국 제조업의 부활에 따른 미국 산업의 부품, 소재, 기계 및 인프라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

둘째, 엔화, 유로화의 과도한 평가 절하로 인한 일본, 유럽으로의 수출 부진은 제품 경쟁력 차원에서 기술, 품질, 문화 등 비가격 경쟁력 제고 노력으로 대응해야 한다

- 일본, 유럽 등 지역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산업들이 환율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큰 만큼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R&D 제고를 통해 세계 선도제품 개발에 나설 필요
- 해외시장 개척능력이나 환율 변동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 대하여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

셋째, 중국 경제의 수입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수출 제품을 중국의 내수시장 변화에 알맞은 상품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 현재 중간재 위주인 대중 무역을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소비재 및 자본재 등 최종재 위주로 전환해 중국의 내수시장 변화에 대응

- 중국 소비 시장에 대한 분석과 현지 맞춤형 마케팅 및 제품 개발을 통해 중국 소비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국내 서비스 업계의 중국 진출 등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함
- 수출기업들의 판매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한 온 오프라인 유통망을 적극 구축하고 수출기업의 소프트파워를 적극 키워야 함

경제연구본부 김천구 선임연구원 (2072-6211, ck1009@hri.co.kr)